

엘프리드 마셜과 학현 변형윤

이 지 순*

논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엘프리드 마셜과 학현 변형윤의 생애와 업적을 비교 고찰하는 것을 통해서 학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데 있다.¹⁾ 하필이면 마셜인가? 그것은 학현이 평생 두고서, 학문에 임하는 마셜의 자세와 그의 인간적 면모를 존경하고 흠모하여 본받고자 했기 때문이다.²⁾ 이는 또한, 그때까지 독립된 학문 단위가 되지 못했던 케임브리지대학에 케임브리지 경제학부(Cambridge School of Economics)를 창설하여 피구, 케인스, Hicks, 휘태커 등의 경제학자를 양성하는 한편 〈경제학원리〉, 〈산업과 무역〉, 〈화폐와 신용 및 상업〉 등의 명저를 집필함으로써 신고전경제학을 정립한 마셜의 업적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재건하여 통계학과 계량경제학 강좌를 개설하고 〈경제수학〉, 〈통계학〉, 〈경기순환연구〉 등을 집필함으로써 한국 근대경제학의 기틀을 구축한 학현의 업적이 대등하다는 필자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학현이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분배의 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의 현실 비판적인 책을 집필하는 동시에 약자의 편에 서서 갖가지 고난을 무릅쓰며 사회활동에 헌신한 점이 평생의 대부분을 상아탑에 머물렀던 마셜의 생애와 구별된다.

핵심 주제어: 마셜, 변형윤, 케임브리지학파, 서울상대 혁신, 계량경제학 전파, 차가운 머리 - 따뜻한 가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1, B32

투고 일자: 2023. 12. 2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mail: jisoon@snu.ac.kr

- 1) 이하 마셜과 학현으로 호칭한다(존칭 생략). 학현은 마셜의 이름을 엘프리드로 표기하였다.
- 2) 학현일지와 학현 전집에 마셜을 표상으로 삼았던 학현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I. 앨프리드 마셜

1. 생애

마셜은 1842년 7월 26일 런던에서 윌리엄 마셜과 레베카 마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란은행의 서기로 재직한 부친은 엄격한 복음주의자로서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던 작은 아들이 장차 뛰어난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아홉 살 되던 해에 아들을 명문 머천트 테일러스 학교에 진학시켰으며 그가 학업에 전념하도록 밤늦게까지 곁에서 지도 감독하였다.

19세인 1861년에 전교 3등으로 졸업함으로써 마셜은 옥스퍼드³⁾ 대학교의 세인트존스 칼리지에서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학한 후 개신교의 성직자가 되는 특전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그의 부친이 바라고 또 바라던 길이었다. 그러나 마셜은 옥스퍼드를 마친 후 성직자가 되는 과정에 흥미를 갖지 않았다. 애지중지하던 수학 공부를 접고 그리스, 로마, 히브리 등의 고문서에 파묻혀 지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은 벌써 자유로운 학풍을 지닌 케임브리지대학교에 가 있었다. 그곳에서 수학 공부에 매진하여 천상의 진리를 알아내는 게 소망이었다.

옥스퍼드의 장학금을 포기하고 케임브리지로 가겠다는 아들의 결정에 부친은 크게 실망하였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들을 케임브리지에 보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마셜의 재능을 높이 산 삼촌이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경비의 일부를 빌려준 데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마셜은 케임브리지에 진학해서 그가 원하던 분야의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마셜이 학부 졸업 필수과정인 수학 우등고시(Mathematics Tripos)를 차석으로 통과하자 케임브리지대학은 즉시 그를 (케임브리지대학교) 세인트존스 칼리지⁴⁾의 펠로우로 임용하였다. 그게 1865년의 일로서 그때부터 마셜이 학문 여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에는 분자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던 마셜의 관심은 이내 인간을 탐구하는 분야인 심리학과 윤리학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된 계기는 그가 잠시 클리프턴 기숙 대학의 수학 강사로 재직 중에 만난 모즐리가 그로트(Grote) 클럽의 회원으로 마셜을

3) 옥스포드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4) 영국에는 세인트존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여럿 있다.

천거하면서다. 마셜이 그로트 클럽에 가입한 게 1867년인데 그 당시 가장 활발하게 모임에 참여한 회원은 시지윅, 모즐리, 클리퍼드, 몰턴, 마셜이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최고지성과의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마셜은 문득 ‘물리학이 아니라 신학의 철학적 기초를 탐구하는 게’ 그의 학자적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물리학에서 인문학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이다.

마셜은 그보다 네 살 위인 시지윅에 대해 ‘도덕철학의 큰 스승으로서 나의 면모를 가다듬어 준 시지윅은 내 영혼의 아버지요 어머니다. 답을 알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받았으며, 고통을 겪을 때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와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 있었다’라고 기술하였다.⁵⁾ 1869년에 시지윅은 케임브리지의 ‘삼위일체 펠로우쉽’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신명기와 사도행전을 히브리어로 가르쳐야 하는 데 따르는 종교적 독단주의로부터 그 자신을 해방하려는 시도였다. 마셜도 시지윅에 영향을 받아서 천상을 바라보는 종교적 독단에서 벗어나 지상에 발을 디딘 인간의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출간된 다윈의 ‘종의 기원’은 그의 사상적 전환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되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완전무결한 하느님의 말씀에서 불완전하나 거듭된 진화를 거쳐서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해 갈 가능성을 지닌 인간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인간 세상의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면서부터 마셜은 틈날 때마다 도시 빈민가를 찾아 가난에 찌든 그곳 주민의 절망적인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당시 만연했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그러한 고민이 수학, 분자물리학, 철학, 신학, 윤리학, 생물학 등에 심취하던 한 젊은이를 정치경제학으로 이끌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철저하게 정치경제학을 연마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스미스, 리카도, 밀, 맬서스, 제번스 등의 저서를 정독하면서 자기만의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한 게 1860년대 말이었는데 스스로 ‘경제학 도제 시절’이라고 불렀던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마셜 경제학의 초석을 놓았다. 1868년에는 케임브리지에 그를 세인트 존스 칼리지 강사로 임용하면서 정치경제학에 특화된 도덕철학 강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마셜이 정치경제학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1870년경에는 아직 어린 학문이던 정치경제학을 정밀과학으로서의 경제학으로 만드는 일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비로소 경제학 도제 시절을 마감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제학 탐구는 일시 휴식기로 접어들었다. 당시만 해도 기혼자는 교수

5) 시지윅과 같은 선배를 둔 마셜이 부럽다.

로 재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메리 페일리⁶⁾와 결혼하게 되면서 1877년에 케임브리지에서 떠나게 되었다. 마셜 부부는 때마침 신설된 브리스틀의 유니버시티 칼리지로 가게 되었는데, 앨프리드는 학장 겸 정치경제학 교수로 그리고 메리 페일리는 여학생 반 정치경제학 강사로서였다. 그곳에서 마셜 부부는 <산업의 경제학>을 출간하였는데 그것은 애초 여성 수강생을 위한 입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내가 쓰던 것을 마셜이 도와서 함께 완성한 것이다.

신혼 살림살이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마셜에게는 브리스틀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학교의 장으로서 모금 활동에 시간과 정력을 쏟느라 본업인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없는 데다 좀처럼 낯지 않는 신장결석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겪었기 때문이다. 성품에 맞지 않는 책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마셜이 학장직과 정치경제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브리스틀을 떠난 해가 1881년이다. 그 후 마셜 부부는 이탈리아의 팔레르모 등지에서 1년간의 휴식기를 갖고 브리스틀에서 활동하는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팔레르모에 머무는 동안 마셜은 <경제학원리>의 골격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마셜은 1882년에 이탈리아에서 귀국하여 브리스틀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로 복직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아놀드 토인비가 사망하자 그가 담당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벨리올강좌교수(Balliol Lectureship Professor)로 부임하였다. 그가 행한 정치경제학 강좌의 평판이 높았으므로 다른 일만 생기지 않았더라면 마셜은 그곳에 머물면서 옥스퍼드경제학과(Oxford School of Economics)를 창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에서 1863년부터 스물한 해 동안 정치경제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헨리 포셋이 1884년에 갑자기 사망하자 이듬해에 포셋의 후임자로 마셜을 그곳으로 불러들였다.⁷⁾

경제학부장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수준 높은 강좌를 개설해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느라 학기 중에는 저서를 집필할 여력이 없던 마셜을 구원한 것은, 그가 매해 여름 속세를 떠나 알프스의 고산지대를 거닐며 보낸 긴긴 ‘하안거’ 덕분이었다. 아침 여섯 시에 간밤에 머물렀던 여관을 나서서 해 질 무렵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산길을 걸으면서 사색에 잠기다 휴식을 취할 때는 가져간 몇 권의 책

6) 메리 페일리(1850~1944)는 케임브리지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의 뉴넘 칼리지에서 다년간 정치경제학을 가르친 경제학자였다. 그러나 스승이자 남편인 앨프리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느라 그녀 자신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지는 못했다. ‘앨프리드가 이론 업적의 커다란 몫은 메리 페일리의 것이다.’ 케인스(1924).

7) 그간에 이루어진 개혁 조치로 기혼자도 케임브리지의 교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가운데 하나를 꺼내 읽는 나날을 반복한 결과, 구부정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케임브리지를 떠났던 6월 초의 마셜이, 햇볕에 그을린 갈색 피부에 곧은 허리를 지닌 건강미 넘치는 10월의 마셜이 되어 돌아왔다. 매년 어김없이 실행에 옮긴 하안거는 마셜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그가 경제문제에 관해 깊이 천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셜이 행한 고난도 사색은 모두 그가 수개월에 걸쳐서 행한 고산 트레킹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⁸⁾

케임브리지로 부임하면서 마셜 부부는 학교 인근 매딩리가에 스스로 밸리올 크로프트(Balliol Croft)⁹⁾라고 명명한 작은 집을 지어 40년 가까이 거주하였다. 제법 넓은 정원에 건립된 그의 집은 햇빛과 바깥 공기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탐구하는 게 행복’인 그의 희망을 반영한 일로서 그가 해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하안거를 가진 것도 그 때문이다. 밸리올 크로프트에서 보낸 그의 일생은 행복하고 생산적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명사는 물론이고 그의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렸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마셜은 해당 운동의 대표들을 밸리올 크로프트로 초빙해서 장시간 담소를 나누거나 그들이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히는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66세가 되던 해인 1908년에 마셜은 그가 20여 년 동안 지켜오던 케임브리지 정치경제학 석좌교수(학부장) 직을 사임하고 은퇴 생활로 들어섰다. 월급이 많지 않고 연금 제도가 없던 시기에 활동했으면서도 마셜은 재직 중에 저축한 돈으로 학부생을 위한 마셜 도서관(Marshall Library)을 운영하고 우수논문을 선정해서 시상하며 경제학부에서 매년 한두 명의 젊은 강사를 임용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하였다. 1919년에 출간한 <산업과 무역>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부터 그의 인세 수입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일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풍족한 시기를 갖게 되었음에도 마셜은 그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경제학 탐구를 장려하는데 사용하였다. 그가 설립한 마셜 도서관을 학교에 기증한 데 더해서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유산도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대학에 귀속되도록 조치하였다.

불세출의 대학자 마셜도 생로병사의 인간사를 거슬릴 수 없었다. 그의 나이 77세에 출간한 <산업과 무역>의 서문에서 ‘노년이 되니 생각하고 말할 내 몫의 시간이 끝나감을 절감한다.’라고 서술했듯이 그 무렵 마셜의 정신과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

8) 부인 메리 페일리의 증언, 케인스(1924)에서 인용함.

9) 현재는 Marshall House로 불린다.

졌다. 사람들을 만나 답소를 나눌 여력을 소진했으며 부인 메리 페일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다. 그가 좋아하는 소설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메리 페일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밤마다 깜깜한 매딩리가를 홀로 거니는 게 낙이었다. 그러면서도 <화폐, 신용 및 상업>의 서문에서 ‘내 생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진보에 관한 나의 견해들을 밝히는 저작물을 출간하겠다는 소망은 여전히 간절하다.’라고 서술하였다. 죽기 직전까지 그가 쓰려고 애쓴 책의 제목은 <진보: 그 경제적 조건들>이었다.¹⁰⁾ 삶의 불꽃이 꺼져가던 순간에도 플라톤의 저서 <공화국 (Republic)>을 찾아 읽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플라톤이 그때 살아 있었다라면 건설했을 법한 국가의 모습에 관해 서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노쇠한 마셜의 지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려고 애썼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절, 움푹 들어간 반짝이는 눈을 지니고 군데군데 흰 머리카락을 드러낸 머리 위에 검은 모자를 꼭 눌러 쓴, 마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지자 같았다. 마침내 그의 몸에서 기운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잊은 채 평소대로 학자로서의 일상을 보내고자 하였다. 82세 생일을 맞기 보름 전인 1924년 7월 13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기 전까지 그러하였다.

2. 업적 - 근대경제학의 시조, 케임브리지학과 정립

(1) 저작물들

마셜은 저서로는 <경제학원리 초판>(1890) ~ <제8 개정판>(1920), <산업의 경제학 요론>(1892), <산업과 무역>(1919), <화폐, 신용 및 상업>(1923)이 있다. 그중 <산업의 경제학 요론>은 <경제학원리>의 핵심 주제를 대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게 정리한 책이다. 논문으로서는 “제번스 평가(1872)”, “근로 계층의 장래(1874)”, “밀의 가치론 소고(1876)”, “통계학의 도표 방법론(1885)”, “경쟁의 몇 가지 측면(1890)”, “지대에 관하여(1893)”, “경제 기사도의 사회적 가능성(1907)”, “전후 국세 과세의 문

10) 마셜의 유고가 2020년에, *Alfred Marshall's Last Challenge: His Book on Economic Progress* 라는 이름의 책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제(1917)” 등이 있다. “정치경제학의 현 위치: 취임사(1885)”와 “경제학 및 그와 연관된 정치과학 강좌의 개설을 요청하는 호소문(1902)”은 케임브리지에서 타 학문 분야에 종속되어 있던 정치경제학의 독립을 주창한 글이다.

교수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마셜은 더욱 열정적으로 저술에 몰입하였다. <경제학원리 제6 개정판>(1910), <제7 개정판>(1916), <제8 개정판>(1920), <산업과 무역>(1919) 그리고 여든 살 생일을 보낸 직후인 1922년 8월에 집필을 끝낸 <화폐, 신용 및 상업>(1923)을 출간한 게 대표적이다. 1890년에 초판이 나온 <경제학원리>를 개정하는 작업의 대미를 장식한 <제8 개정판>을 출간한 게 그의 나이 77세, 공전의 히트작인 <산업과 무역>을 출간한 게 그의 나이 76세, 그리고 <화폐, 신용 및 상업>의 집필을 끝낸 게 그가 사망하기 두 해 전인 80세 때의 일이라는 사실이 경이롭다.

(2) 학문적 기여

마셜이 배출한 뛰어난 제자인 케인스는 그의 스승이 이룩한 학문적 기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하나는 그가 저술하고 가르친 내용 중 화폐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원리>에 관한 것이다.

케인스는 화폐론과 관련된 마셜의 학문적 기여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1) 화폐수량설을 가치 일반론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언제나 ‘화폐의 가치는 그것의 공급과 그에 대한 수요의 균형을 통해 정해진다.’라고 가르쳤다. 이때 공급은 주로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수요는 경제주체가,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비교 형량해서, 어느 때고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는 게 그의 가설이다.¹¹⁾ 2) 실질 이자율과 화폐(명목) 이자율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화폐 가치의 불규칙한 변동이 초래하는 신용 순환(경기순환의 일부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당시의 신용 제도하에서,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단계적 인과관계와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에서 정해지는 어음) 할인율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4) 상이한 국가 화폐 간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이 각 화폐의 구매력이 평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구매력평가설’을 주창하였다. 5) 지수 문제(index problem)의 해결 방안으로서 ‘연쇄 방법(chain method)’을 활용하자고 주창하였다. 6) 교환의 일상적인 매개 수단으로서 금

11) 이를 보면 마셜이 화폐수요의 거래적 동기뿐만 아니라 투기적 동기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과 은 등의 실물화폐 대신 금-은본위제를 기초로 한 지폐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7) 계약 기간 중 화폐의 가치가 예상치 않게 변화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가치는 당초에 정한 대로 확정하는 계약인 ‘물가 지수 본위 (tabular standard)’를 정부가 공인하는 장기계약제도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마셜이 <경제학원리>를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브리스톨대 학장직을 사임한 후 부부가 요양차 이탈리아의 팔레르모 등지에서 1년간 머물던 1881년이었다. 그러나 원리를 집필하는 작업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학교 행정을 수행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데다 완벽함을 지향한 성품과 경제학의 전 분야를 다루려는 욕구로 인해 집필에 착수한 지 십 년 만인 1890년에야 초판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마셜은 당대 최고 경제학자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그가 낸 원리 초판은 출간과 동시에 완벽한 성공작으로 평가되었다.

마셜의 <경제학원리>가 학계에 공헌한 주요 내용을 에지워스의 도움을 받아서 케인스가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리카도와 제번스의 가치론에서 미흡했던 사항(가치 결정에 있어 수요요인과 생산비 요인 중 어느 것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을 말끔하게 정리하였다. 마셜은 가치 결정에서 생산비가 수요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스미스와 밀의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2) 재화, 노동, 자원, 자본재, 금융, 외환 시장 등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가격, 임금, 이자율, 지대, 물가, 고용, 이윤, 소득, 생산량, 환율 등이 수미일관하게 정해진다는 일반균형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는 예를 들어 물가, 임금 또는 이윤을 설명하려면 각각에 특화된 특수 이론이 필요하다는 당시 학자들의 통설을 부인하는 주장이다. 가치론을 설파하면서 마셜은 한계 (margin) 및 대체 (substitution)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전자는 균형점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장치이고 후자는 여건 변화의 결과 원래의 균형점에서 다른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밝히는 핵심 장치라는 게 마셜의 이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에서의 대체 (substitution at the margin)’를 그의 가치론이 지닌 핵심적 설명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경제분석에서 시간 또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기균형과 단기균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경제가 한 기간에서 다른 기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외부경제와 내부경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준지대, 정상가치, 정상이윤 등의 개념과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마셜의 기간 분석 덕택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인했듯이 그의 경제이론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시간 분석에 관련된 것이다. 4) 소비자잉여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

한지, 어떤 경우에 자유방임이 사회적 이점을 극대화하지 못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셜이 하고자 하던 바를 완수한 것은 그의 제자인 피구였다. 5) 독점 현상에 관해 설명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방해물들(특히 진입장벽)을 모두 제거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독점적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6) 탄력성의 개념과 속성을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경제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수요곡선상에서 가격을 p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수요량을 q 라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 = (\frac{dq}{q})/(-\frac{dp}{p})$ 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 사람은 마셜이 최초이다.

(3) 마셜이 참여한 ‘운동’

23년간 교수직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집필하는 본업을 수행하면서 마셜은 각종 ‘운동’에 참가했는데 그중 다음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1) 브리티시 경제학회(현 왕립경제학회, Royal Economic Society)의 창립(1890)과 학술지 *Economic Journal*의 발간을 주도하였다.¹²⁾ 2) 케임브리지대 학위 과정에 여성의 입교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였다. 여학교인 케임브리지의 뉴넴 칼리지에서 다년간 제자를 가르쳤고, 브리스톨대학의 학장직을 수락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학교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여학생을 받았다는 사실임을 강조하였으며, 여성의 해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메리 페일리를 끔찍이 사랑했음에도 마셜은 여성의 케임브리지 입교에 반대하였다. 왜 그랬을까? 케인스는 그 까닭을 한평생 남성우월주의를 고집하던 부친의 그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마셜의 심성에서 찾았다. 3) 케임브리지 경제학부(파)를 창립했다. 3)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4) 케임브리지 경제학부(파)의 창립

마셜이 케임브리지의 석좌교수로 부임했을 때 정치경제학은 도덕과학 졸업 우등고시(Moral Sciences Tripos)와 역사 졸업 우등고시(History Tripos)의 군소 분야로 속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정밀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던 정치경제학을 더욱더 엄밀한 학문으로 키워나가려면 도덕철학과 역사학 과정의 한 부분이던 정치경제

12) 1891년에 출범한 *Economic Journal*은 2023년 11월 현재 제133권 656호의 연륜을 지닌다.

학을 거기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한 마셜은 그의 석좌교수 취임사에서 정치경제학의 학문적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였다.¹³⁾ 그해 1885년의 일인데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투쟁을 지속한 결과 1903년에 이르러서 경제학부 신설과 독자적인 경제학 졸업 우등고시(Economics Tripos)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세간에서 그를 ‘케임브리지 경제학부(파)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케임브리지 정치경제학부(파)라고 부르지 않았음에 유념하자.)

마셜을 케임브리지경제학과(Cambridge School of Economics)의 창시자로 지칭하는 더 중요한 까닭은 그가 수많은 제자와 그들의 제자를 영국의 경제학계를 선도하는 유능한 학자로 키워냈기 때문이다.¹⁴⁾ 그가 세상을 하직하던 당시 영국의 경제학은 그의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영국) 경제과학의 아버지였다. 그 옛날 시므온이 ‘주님을 뵈었으니 이제 저를 평화로이 가게 해 주십시오.’¹⁵⁾라고 한 것처럼 마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 제가 뜻하던 바를 다 이루었으니 평화로이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인스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마셜은 시지윅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 시절부터 무종교 주의자로 살았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간직하던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기독교의 각종 종교의식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II. 학현 변형윤

1. 생애

학현은 황해도 황주에서 1927년에 부유하며 엄격한 유교 가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향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를 나왔다. 졸업 후 오카야마 고등학교 이학부 진학을 모색했으나 색약인 사람은 진학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포기하고 1945년에 경성경제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일본의 패망조짐이 짙어가던 시기의 일이다.

13) 마셜은 이보다 10년 전인 1875년부터 포셋과 시지윅의 주도로 도덕철학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을 독립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14) ‘마셜의 제자가 영국 대학 경제학 석좌교수의 절반을 차지하며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학 강의의 과반이 그들이 행한 것이다.’ 폭스웰(1987).

15) 루카 복음 2장 29절. 통상 시메온으로 표기한다.

조국의 해방과 곧 이은 남북분단은 학현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생이별하는 평생의 회한을 안겼다. 남북왕래가 어려워지면서 38선 이북에 거주하던 학현의 부모와 7남매 가운데 3남 1녀만 남하하고 북쪽에 남은 여자 형제 셋과 부모는 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이다.¹⁶⁾

19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할 때 동 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재편됨에 따라서 학현은 상과대학 전문부 학생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1948년에 전문부를 졸업하고 학부 2학년에 진학하였는데 이는 학문의 길을 걸으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 일이다.¹⁷⁾ 학부로 진학한 후 학현은 그야말로 학업에 정진하였다. 빈약한 학업 여건하에서도 경제철학을 수강하면서 베버와 지멜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과목을 가르친 권세원 교수의 제자가 되는 행운을 누렸다.

비교적 순탄했던 학현의 상대 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6.25 전란으로 온 나라가 커다란 혼란 속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는 1950년 12월에 유엔군 연락장교의 일원이 되어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54년에 육사 교관이 되면서 서울로 왔다. 그가 제대한 게 이듬해인 1955년 10월의 일이므로 5년간이나 군에 있었던 셈이다.¹⁸⁾

학현은 군대 시절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그에 관해 소설가 강유일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듬해(1952년) 8월인가 외가의 누이뻘 되는 사람이 좀 쓸 만한 후배라며 결혼을 권유해 왔다. 전쟁 중에 결혼이라니, 결혼이라는 말조차 모순에 찬 시절이었다고 그(학현)는 웃는다. 규수는 충청북도 청주 여자로, 서울교대 전신인 경기사범학교를 나온, 서울 종암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피난 온 23세의 처녀였다. 왜 그랬을까. 변 교수의 모친은 언제나 그에게 년 충청도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결국 그는 그해 바로 그 충청도 처녀와 약혼했고 이듬해인 1953년 3월 21일, 부산 광복동에 있는 백화당 예식장에서 기독교 집안인 처가에서 모신, 이름을 알 길 없는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독립투사의 결혼식도 아닌데 태극기를 배경으로 26세의 변 중위와 일생을 맹세하고 있는 충청도 신부,

16) 학현은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누나는 서울로 출가하면서 전쟁 전부터 서울에 거주하였다. 남작 동생 둘은 1.4후퇴의 혼란을 틈타서 ‘미군 트럭에 매달리는 등 고생고생하며’ 남하하는 데 성공했으나 부모와 나머지 여자 형제는 그러지 못했다.

17) 당시 전문부는 구제 전문학교에서 신제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과 역을 수행했던 과도적 기관이었다.

18) 제대 후에도 육사 교관직을 금방 그만두지 못하고 후임자를 찾기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생도들을 가르쳤다.

그녀가 바로 ‘나라 경제 운운하나 집안 경제는 제로’라고 말함으로써 변 교수의 경제학에 치명타를 가하는, 지금의 아내 최명순 씨이다.”¹⁹⁾

학현은 1955년 9월 꿈에도 그리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다. 약관 28세에 모교의 강사가 된 것이다. 이듬해 봄에는 전임강사대우가 되었으며 1957년 2월에는 전임강사로 발령받아서 서울대학교의 정규직 교수가 되었다. 필수과목인 고등수학, 경제수학, 통계학을 맡아서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평소 수학에 능통했던 학현이었기에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었다. 1958년부터는 계량경제학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듯이 4.19와 5.16이라는 대사건을 겪기까지 경제학자로서 학현의 주 관심사는 경제분석에서 수리통계방법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4.19와 5.16이 학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불의에 맞서 대항하다가 총알에 맞아 죽어가는 학생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교수 데모에 앞장섰고, 5.16 후에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다수의 기고문과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당시만 해도 학현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반독재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고도로 정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후학을 바른길로 이끌며 저서, 논문, 기고문 등을 통해서 냉철한 정론을 펼치는 게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서슬이 퍼런 군부독재에 굴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이 펼치는 정책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저서와 논문을 잇따라서 발표하였다. 따듯한 가슴의 충동을 억제하며 냉철한 머리에 복종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유신정권의 강압이 거세지면서 한평생 학교 안에 머물렀다는 학현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는 강원룡 목사의 주도하에 열리던 아카데미하우스 대화 모임에서 경제문제를 다룰 때 종종 학현을 강사로 초빙한 게 계기가 되었다. 1980년에 신군부가 불길처럼 퍼지던 민주화 열기를 짓밟으며 군사독재를 이어가게 되자 더 이상 엄중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던 학현은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으로서 “최근 학원 사태에 관한 성명서(재경 교수 301명의 학원민주화선언)” 발표를 주도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절정을 이루던 그해 5월에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 지식인선언은 5.17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5.18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그 일을 빌미 삼아 학현을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강제로 해임하였다. 소위 해직 교

19) 강유일, “추악한 짓 거부해 온 경제학자 - ‘학원민주화가 내 꿈입니다.’”, 〈주간조선〉, 1989. 2.

수가 된 것이다. 다음은 학현이 직접 쓴 그 경위다.

“본인은 1980년 7월 16일 저녁 8시 30분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원 3명에 의해 남산의 중앙정보부 내 한 건물(지하 2층)로 연행되어 7월 18일 늦게까지 ‘김대중 사건’,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한 일’ 등과 관련해서 취조받았습니다. 취조가 끝난 후 취조관은 본인에게 사직서(서울대 교수직)를 쓸 것을 강요했으며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직서의 날인은 7월 19일 오전에 수사관들이 집으로 가서 강요하여 아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직서는 7월 19일 본인을 석방하면서 수사관에 의해서 서울대 총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직서는 7월 31일 수리되었으며 본인은 강제로 서울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식산업사, 학현 변형윤 전집 제9권)

1980년 8월부터 1984년 9월까지 4년간 해직 교수로 있으면서 학현의 인생은 또다시 커다란 전기를 맞았다. 그야말로 갑자기 ‘실업자’가 된 그는 강제로 학교를 떠나게 된 사람으로서의 울분을 채 삭이기도 전에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까 노심초사하는 신세가 되었다. 학현의 비참한 상황은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평소에 쌓은 덕이 많았던 학현을 도운 지인이 많았으며 그 자신도 모처럼 강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하면서 그 결과물을 저서로 출간하고 강연을 통해 경륜을 발표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실제로 학현은 해직 교수로 있는 동안에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1980)〉, 〈반주류의 경제학(편서, 1981)〉, 〈분배의 경제학(1983)〉 등의 역작을 출간했다. 이 시기에 학현은 따듯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는 변화를 체험하면서도 머리마저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노심초사하였다.

2008년은 학현에게 매우 슬픈 해였다. 평생 사랑하며 의지하던 부인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그때부터 장장 16년간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부인을 맞아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남하하지 못해서 북쪽에 남은 부모 형제와 생이별했던 통한을 잊었던 학현은 말년에 들어서 다시금 외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냉철한 머리와 따듯한 마음’을 지닌 후진 양성에 전념하던 학현은 2022년 12월 24일 향년 95세에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2. 업적

(1) 경제수학, 통계학, 계량경제학 발전의 초석

어릴 때부터 수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학현은 상과대학에 진학해서도 수학 공부에 매진하며 종종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일하면서 학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그였기에 모교에 전임 강사로 부임하면서 고등수학, 경제수학, 통계학, 계량경제학, 산업연관론 등을 강의한 것은 그의 재능에 걸맞은 일이었다. 이들 일련의 과목은 현대 주류경제학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과 관련된 것인데 교재조차 마땅하지 않던 시절이었음에도 학현은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2년에 학현은 불과 4년 전인 1958년에 출간된 〈선형계획법과 경제분석(Linear Programming & Economic Analysis)〉을 발췌해서 번역한 〈현대경제학〉을 출간하였다. 이는 투입산출모형, 게임이론 등을 선형계획법이라는 비교적 쉬운 수학 기법을 써서 설명한 책인데 ‘현대의 고전’인 그 책을 그렇게 빨리 국내에 소개한 데서 주류경제학에 열정을 보인 학현의 모습을 본다.²⁰⁾ 그에게 배운 학생이 훗날 유능한 사회인 또는 탁월한 경제학자로 성장한 데는 학현이라는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스승의 공이 지대하다.

미국 남부의 명문대학인 밴더빌트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게 된 일은 학현에게 커다란 행복이었다. 1962년에 방한했을 당시 학현을 만났을 때 그의 출중함을 단번에 알아본 조제스큐-로젠 교수가 포드 재단 장학생으로서 밴더빌트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학현은 가족을 서울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1963년 8월 말에 남부의 하버드라는 명성을 지닌 밴더빌트로 갔다. 그가 밴더빌트에서 수학할 때 가졌던 감회를 솔직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전략) 캠퍼스가 몹시 아름다웠다. (중략) (조제스큐-로젠) 교수는 고급 경제이론과 통계학을 가르쳤는데 그 강의를 따라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중략) 경제학 강의 시간에 여러 가지 동서양 고전도 나오고, 정치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하여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학제적 지식과 열의를 갖고 강의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적으로 연구에 매진하였다. 나는 교수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나도 돌아가면 저 교수처럼 살아야 하겠구나’하고 결심했다. (후략)”

20) 아래에서 인용한 정기준(2023)의 추모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밴더빌트에서 공부하려던 학현의 소망은 1년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부인이 몹시 아프다는 전갈을 받은 데다 학교에서도 ‘교내문제와 얽힌 난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며 귀국을 재촉하였다. 학현이 밴더빌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수년간 더 연구하면서 그곳의 학문 풍토를 온전히 체득하고 귀국했다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현의 학문적 업적이 크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경제학계에 ‘계량경제학’을 도입한 게 특히 두드러진다. 그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한 “학현 변형운 선생님 추모사 - 정기준”²¹⁾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경제학에 ‘계량경제학’을 도입하신 일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며, 학문적으로 학현 선생님의 최고 업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 후의 학문 발전 과정에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계량경제학은 경제학과 수학과 통계학의 종합학문인데, 측정을 겸비한 이론(theory with measurement)을 모토로 1930년 말 세계계량경제학회(The Econometric Society: ES)가 창립되면서 탄생한 신생 학문이었다.

1965년부터 매5년마다 세계계량경제학회세계대회(World Congress: ESWC)가 열리는데, 제1회 대회는 1965년 로마에서 열렸다.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주관한 모리시마(Morishima) 교수의 초청과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학현 선생님은 여기에 참석하시어 세계계량경제학회 창립자이며 노벨경제학상 최초 수상자인 틴베르헌(Tinbergen)과 프리쉬(Frisch)를 비롯한 세계 일류 학자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셨다. 그때의 감격을 학현선생님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정말로 시골 사람(?)이 로마에 와서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나는 부지런히 여러 세션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논문발표와 토론을 들었다. 이 열흘 동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ESWC 제2회 대회는 1970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학현 선생님은 새뮤얼슨 강연 뒤에 벌어진 토빈(Tobin), 칼도(Kaldor), 프리드만(Friedman) 해리 지 존슨(H. G. Johnson), 조안 로빈슨(J. Robinson) 등이 참여하는 열띤 논쟁을 직접 목격하는 감격을 누리셨다. 그리고 학현선생님이 흠모하는 엘프리드 마셜 기념도서관 등을 둘러보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남기셨다:

‘케임브리지대학은 경제학의 메카 같은 곳이 아닌가! 마셜과 케인스가 숨 쉬던 공기

21) <대한민국학술원동정>(2023)에 실린 원문 그대로이다.

를 맛보고 그들이 다녔던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책을 보는 경험을 어떻게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 일생을 통해 정말로 행복한 일주일이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국내외로 계량경제학 이론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을 대표하는 분은 학현 선생님이었다. 1984년 해직 상황에서 벗어난 후 학현 선생님은 1985년 미국 보스턴에서의 ESWC 제5차 대회에 참석하셨다. 여기에서 한국이 1991년 세계계량경제학회 극동대회(FEMES)를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 한국경제학회는 그런 제의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학현 선생님은 ‘한국계량경제학회’를 창립하여 그 제의를 수용하기로 작정하고 1986년 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맡으셨고 나는 그 간사를 맡았다. (중략)

1991년 FEMES 서울대회는 대성공이었다. 노벨상 수상자 애로우(Arrow) 교수가 참석하였고, 후에 수상자가 된 스티글리츠(Stiglitz) 교수, 허위즈(Hurwicz) 교수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삼백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등으로, 2년 전 교토 대회의 성과를 압도하였다. (중략)

세계 계량경제학회의 2025년 ESWC 제13차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2023년 벽두에 발표되었다. 이를 유치하는 일은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가 주도하고 있다. 세계 계량경제학회는 좁은 의미의 계량경제학자의 학회가 아니라 이론경제학 전체를 포괄하는 학회다. 그리고 경제학 분야 세계대회를 여는 다른 학회는 없으므로, ESWC를 ‘세계 경제학자대회’라고 부르고, ‘경제학의 올림픽’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5년 ESWC 세계대회의 서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돌아가시기 여러 달 전에 학현 선생님께 보고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후략)

(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발전에 기여

서울상대에 봉직하면서 학현은 두 번에 걸쳐서 모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였다.

그는 ‘어용교수와 무능교수는 모두 물러나라’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불길처럼 일던 때인 1960년에 서울상대 교무과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상대 교수 중에 유일하게 교수 시위에 동참한 데다 학생들의 학교 선배이기도 해서 그들과 말이 잘 통할 거라는 학교 측의 기대를 반영한 조치였다. 교무과장으로서 사실상 학장직을 수행한 학현은 그해 시월에 열린 교무회의에서 상대 교수 전원이 사표를 내자는 안을 제안해서 동의를 얻었다. 당시 20명의 교수 가운데 15명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상대에 재직 중이던 어용교수와 무능교수가 모두 물러났다. 학현은 그 빈자리를 국내외에서 수학

한 10여 명의 유능한 신진교수로 충원하였다. 이로써 상과대학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서울대 내에서도 최고의 대학이라는 평판을 지닌 아주 웅골찬 학문의 전당으로 재탄생하는 길이 열렸다.

1970년에 약관 43세의 나이에 학장으로 임명된 학현은 취임 초부터 서울상대를 명실상부한 일류 대학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상과대학 동창회장이던 박두병 회장에게 부탁해서 70명 내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곧이어서 세계 최고 대학에서 수학한 신진 인재들을 교수로 영입하는 한편 당시 조교 또는 강사로 봉직하던 사람들이 학문 선진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오도록 독려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인재가 일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한국의 경제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학현의 선구자적인 노력 덕분이다. 학현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를 통한 교수들의 연구 분위기 진작에도 힘을 쏟았다. 양 연구소에서 매월 교수의 연구 발표회를 열었으며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제논집>²²⁾을 국내 최고의 경제학술지가 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당시에는 서울대 내의 한 단과 대학에서 다른 단과 대학으로 전학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학현이 학장으로 있던 상대에서는 고난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뽑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에 횡행하던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서 오로지 실력 있는 학생에게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한 공정한 처사였다.

학현의 상과대학 쇄신 작업은 소위 시월유신으로 독재가 심화함에 따라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 끈질기며 치열한 반독재운동의 선봉인 상과대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당국이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추진하면서 상과대학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 결과 상과대학은 서울대학교가 관악에 새 동지를 열던 1975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뻗속까지 상대인이었던 학현은 그의 모교가 문을 닫게 된 현실에 크게 상심하였다. 교수직을 버리려고 결심했다가도 교수로 정년을 마치겠다는 초심과 서울대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버릴 수 없어서 평교수로 남아 조용히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22) 창간 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제일의 경제학술지로 평가되던 <경제논집>의 연륜은 2023년 현재 제62권을 발간한 데 이른다.

(3) 한국경제학회 중흥을 비롯한 학회 활동

한국 계량경제학의 개척자였던 학현은 1986년에 한국계량경제학회를 창립하고 그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동학회는 수리경제학, 통계학, 계량경제학, 이론경제학 등을 총괄하는 학술단체로서 학술대회개최, 세계(혹은 극동, 아시아, 유럽) 계량경제학회 참가, 학술지 발간, 월례 세미나 등을 열어 오면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계량경제학회가 발간하는 계간 영문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는 세계 우수학술논문 인용지수인 SCOPUS에 등재되어 있다. 동학회의 회원은 한국의 경제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학현은 1989년에 한국의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가 회장으로서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학 관련 학회를 총괄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던 한국경제학회를 한국에서 활동 중인 경제 관련 학회들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든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등 다수의 학회를 설득하여 그들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함께 논문을 발표하게 만든 게 그 시발이다. 그 후 그런 취지에 호응하는 학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결과 전국의 경제학 관련 학회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 학회별 논문발표회(학회별 세션) 및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공동논문발표회(전체 세션)를 열게 되었다.²³⁾ 이렇듯이 경제 관련 학회들이 통합의 정신하에 한국경제학회를 구심점으로 연대하게 된 것은 학현의 공로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경제학 분야 회원을 뽑을 때 한국경제학회에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학현이 한국경제학회를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학회의 어머니 학회(母學會)로 발전시킨 덕이다.

(4) 학현연구실 및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해직 교수가 된 후 학현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학현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펼쳤다. 당시의 학현연구실은 개인 연구실이었으며 그곳에서 연구 모임을 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84년에 복직하면서 그와 학문적 지향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공동 연구 공간으로 확대한 학현연구실을 출범시켰다. 이때부터 많은 수의 후학이 정기적으

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김세원 학회장이 개최한 2007 공동학술대회가 시효다. 2024년 2월에 18회차인 2024 공동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로 연구실에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학계에 청량한 바람을 일으켰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은 후에 학현은 그가 운영하던 개인 연구실을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라는 공개적이며 공적인 기구로 개편하였다.²⁴⁾ 이때부터 빠짐없이 월례 발표회를 열고 있고 그 결과물을 담은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월 2회에 걸쳐서 발행해 오고 있다. 정기간행물인 <경제학 연구>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연구소의 자매학회인 한국경제발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경제발전 연구>로 맥을 잇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도 많은 수의 학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출범할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상황리에 열린다. 이에 더해서 <연구 총서>도 매년 두 권씩 발간해 오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 대해서 학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연구소의 활동을 떠들썩하게 홍보하기보다 조용히 내실 있게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한국경제에 관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학술단체, 연구단체로 그 구실을 계속해 갈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착실히 뿌리를 내려서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구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방침으로 정부나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좇지 않고 꾸준히 학술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Ⅲ. 두 현인 비교

1. 생애

학현과 마셜의 인생 역정에는 유사점과 상이점이 공존한다. 두 사람 모두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으며 본래 자연과학 또는 이과를 전공하려다가 경제학자가 되었다. 마셜은 신고전학과와 케임브리지학파의 수장이고 학현은 국내에 현대 경제학을 소개한 이론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약자의 편에서 부정부패와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 잡고자 헌신한 큰 스승이다.

마셜은 도덕철학에 종속되어 있던 정치경제학을 독립된 학문 분야로 만들려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케임브리지대학이 경제학부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케임브리지 경제학부가 배출한 인재들이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리더 또는 영국 경제학

24)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닌 순수한 민간연구소임에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평판은 전자 못지않게 높다.

계의 중추가 되게 하였다.

학현은 어용을 일삼거나 능력이 부족한 교수의 자리를 전국에서 스카우트한 뛰어난 인재와 해외 유학을 마친 젊은 인재로 채우는 ‘변형운 혁명’²⁵⁾을 통해서 서울상대가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닦았다. 서울상대가 배출한 걸출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정계, 재계, 언론계, 관계 그리고 학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도 케임브리지의 그것과 유사하다.

창립 이래 현재까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지니며 활약하는 케임브리지 경제학부와는 달리 서울상대는 ‘마지막이자 영원한 학장’으로 불린 학현의 시대를 끝으로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졌다.

2. 학문

마셜은 맬서스, 스미스, 리카도, 밀 등의 고전학파가 주로 질적인 관점에서 정치경제이론을 전개했던 것에 더해서 수리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양적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경제 이해에 대한 수학적 접근, 그중에서도 그래프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방법론을 완성한 이가 마셜이다. 마셜이 확립한 그래프 분석 방법은 그가 배출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받은 후학에 의해서 전 영국 그리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전 세계로 퍼졌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째가 되는 오늘날에도 마셜이 정립한 그래프 분석 방법은 경제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경제학도라면 누구나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그 둘을 결합한 계량경제학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학현의 생각도 마셜의 인식과 같았다. 학현은 그때까지 불모지였던 한국 경제학계에서 고등수학, 수리경제학, 통계학 그리고 계량경제학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수리 통계이론에 바탕을 둔 엄밀한 양적 분석보다는 철학적이며 역사적인 논쟁에 치우친 일본 경제학계의 풍토에 익숙하던 여타 경제학자들의 냉소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펼친 학현은 말 그대로 학문의 선구자다.

고전학파의 질적 접근방법에 더해 수학과 통계학에 바탕을 둔 양적 접근방법으로 중무장한 마셜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1873년에서 17년이 지난 1890년이 되어

25) 정운찬(1992), 경기동창회보.

서야 <경제학원리(초판)>를 세상에 내어놓았다. 이렇게 긴 회임 기간을 거친 것은, 설익은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지 않겠다는 마셜의 강한 신념 때문이다. 초판이 세상에 나온 후에 <경제학원리>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한 마셜은 그가 경제학부 장직에서 물러난 1908년까지 제2, 3, 4, 5 개정판을 출간했다. 그 후로도 수정작업을 반복해서 제6 개정판과 제7 개정판을 낸 데 이어 그가 사망하기 4년 전에 나온 제8 개정판으로 끝을 맺었다.

전 절에서 소개한 대로 마셜은 1919년(76세)에 <산업과 무역>을 출간하고 1923년(81세)에 <화폐, 신용 및 상업>을 출간했다. 이들은 <경제학원리>와 더불어서 마셜의 3대 주저로 불린다. 이 밖에 <경제학원리> 초판의 핵심주제를 추린 <산업의 경제학 요론>(1892)을 냈다.²⁶⁾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76세와 81세라는 고령이 되어서야 <산업과 무역> 그리고 <화폐, 신용 및 상업>을 출간했다는 사실이다. 두 책 모두 그 주요 내용은 책이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의 머릿속에 밑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가령 <산업과 무역>은 1875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학계나 업계의 지도자들을 만나 보호무역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청취하는 동시에 미국의 산업 현장을 광범위하게 시찰하면서 느낀 바를 답아서 귀국 후 골격을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화폐, 신용 및 상업>에 실린 내용은 대부분 그 책이 세상에 나오기 40년 전부터 구전(口傳)으로 그가 가르쳤던 내용이다.

학현이 펴낸 저서에는, <경제수학>(1957), <통계학>(공저, 1958, 1975), <후진국 경제론>(공편, 1961), <현대경제학>(1962), *Readings in Business Cycles*(1968), *Readings in Statistics and Econometrics*(1971), *Readings in Regional Economics*(1974), <경기순환 연구>(1976), <한국경제론>(편저, 1977, 1989, 1995), <제3세계의 경제발전>(공편역, 1979),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1980), <반주류의 경제학>(편역, 1981), <분배의 경제학>(1983), <경제학 대 논쟁>(공편, 1984), <경제석학의 생애와 사상 상·하>(공편, 1985), <현대경제학연구>(1985), <한국경제연구>(1986), <경제학 교수와 경제 현실>(1986),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1986), <경제를 되새기며>(2000) 등이 있다. 학현의 글을 집대성한 <학현 변형윤 전집>과 <학현 변형윤 교수 대화록, 대담 윤진호>가 2012년에 출간되었고 2019년에 회고록인 <학현일지>를 냈다. 그는 몇 권의 연구보고서도 냈는데, <소비구조변화와 유통경제>(1969), <독과점 규제의 경제적 효과>(1976), <경제발전과 서비스 산

26) 이 책은 출간 후 저자가 사망한 시점까지 약 81,000부가 팔린 히트작이다.

업에 관한 연구>(1984)가 그것이다.

위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류경제학 탐구에 몰입하던 학현이 그 이후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글로 쓰기 시작해서 점점 더 반주류²⁷⁾의 경제학 탐구 쪽으로 연구 방향을 틀었다가 말년에는 철학적이고 회고적이고 자전적인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학문에 입문한 이래 경제학 방법론 및 경제이론 연구에 몰입하며 연구하고 가르치던 학현을 현실 비판적인 연구와 글쓰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든 것은 극히 암울했던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현실이다. 이승만 문민 독재,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의 모순과 병폐를 뼈저리게 체험한 학현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직한 학현에게 불의를 외면하라는 요구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그렇게 보면 박정희 군사독재가 그보다 훨씬 더 강압적인 유신독재로 변화되던 시기인 70년대 중반까지도 주류경제학 연구에 몰입한 학현의 학자적 자세가 매우 귀중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

케임브리지 경제학부 정교수로 부임한 1985년부터 <경제학원리> 초판을 낸 1980년가가 마셜의 생애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시기였다. <경제학원리>를 저술하는 데 집중하면서 주 2회 강좌를 진행하는 한편 “매주 두 차례씩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집에 있겠으니, 조언과 조력이 필요한 케임브리지 구성원이면, 내 강좌의 수강생이건 아니건, 누구나 찾아오시오”하고 써 붙이고서는 그를 찾아오는 학생을 성심껏 훈도하였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강의 노트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게 마셜의 관행이었다. 그의 강의는 체계적이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잘 정제된 지식 모음을 전달하는 대신 학생이 경제에 관하여 그와 함께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매주 그가 아직 가르치지 않은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내주고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그에 대한 답을 설명하였다.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그들이 낸 답을 고쳐주느라 ‘빨강 잉크’를 아낌없이 사용하였다.²⁸⁾

27) 이는 학현 자신의 표현이다.

28) 마셜의 수업 방식은 매우 명민한 학생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학현은 제자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강의실에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을 가차 없이 쫓아낸 데서 알 수 있듯이 학현은 매우 엄격한 선생님이었다. 그의 엄격함은, 그러나 오직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기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스승이었다. 수많은 학생이 연구실로 혹은 자택으로 학현을 찾아 큰형이나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는 심정으로 그를 배우고 따랐다. 쓸 만한 교재를 구하기 어려운 제자를 위해서 선진 학문의 요체를 추린 책을 발간하거나 관련 분야의 주옥같은 글들을 *Readings in ... Series* 형태의 책으로 내었다. 당시에는 학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충실하게 강의에 임한 교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90분의 강의 시간을 꼬박 채웠으며 휴강과 결강이 만연하던 시대에 자의로는 한 번도 휴강하지 않았다.

4. 사회활동

연구와 강의 그리고 집필로 바빴던 마셜도 사회의 부름을 아주 외면하지는 못했다. 그는 1891년부터 1894년까지 ‘왕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기실 마셜은 그가 관심을 둔 경제문제에 관한 원자료를 접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활동을 소중하게 여겼다. 노동위원회 최종보고서에 실린 노동조합, 최저임금, 고용불안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1893년에는 왕립노령극빈자위원회에서 증언하였으며, 1899년에는 인디아지폐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을 증언하였고, 같은 해에 왕립지방세위원회에서 증언하였다. 1903년에는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교역의 재정정책’이라는 메모랜덤을 남겼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마셜은 저작 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때때로 언론 매체를 통한 논쟁에도 참여하였다. 언론 매체를 통한 논쟁의 주제는 정부지출, 알코올중독,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 할 이유, 전후의 과세, 전쟁과 시민, 프리미엄 부 채권 등 다채롭다.

독일과의 전쟁에 관해 마셜은 ‘독일이 선제공격을 해오면 마땅히 맞서서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평화론자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독일인이 매우 양심적이며 올바르다는 사실을 잘 안다. 나는 또 그들이 망설임 없이 나라의 부름에 따라 자세를 갖추었으며 가족을 사랑하고 벗에게 진실함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독일인을 존경하며 그들의 우정을 기대한다고 밝히되 만일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능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결심임을 천명해

야 한다.’라고 하였다. 평화공존을 추구하되 필요시에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평화론자와 적과의 공존은 헛된 꿈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을 섬멸하자는 맹목적인 애국론자의 거센 비난을 불러왔다.

학현은 마셜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펼쳤다. 그렇게 된 것의 90% 이상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현실이 그에게 상아탑에 안주하는 복락을 허락하지 않은 탓이다.

1960년 4.19 며칠 후에 4.25 교수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총탄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부정부패를 자행해 온 현 정권과 집권당은 물러나라.”하고 외친 것이 학현이 전개했던 반독재 투쟁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1980년에 신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열기가 전국을 휩쓸기까지는 학현은 은인자중하였다. 그러다가 그해 4월에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면서부터 학현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내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²⁹⁾ 그해 4월에 ‘최근 학원 사태에 관한 성명서(재경 교수 361명의 학원민주화선언)’ 그리고 5월에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전자는 학원 민주화를 후자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주창한 선언이다.

신군부를 엄중하게 비판한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전원이 해직되었다.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난’ 학현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의 소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사적 기관인 학현연구실과 그것을 공적 기관으로 개편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통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야인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를 개혁하는 운동에 나서는 것이었다. 학현은 두 가지 모두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회운동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학현을 대표로 추대하려는 기관이 여럿 등장했다. 당초에 그러한 요청을 고사하던 학현도 그들의 거듭된 간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1988년에는 창간위원회 위원 겸 고문으로서 한겨레신문을 출범시키는 일에 동참하였다. 1989년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경제정의>의 발행인이 되었으며, 1998년에는 제2건국위 대표공동위원장이 되었다. 학현은 이들 활동에 참여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와 동행했던 사람 중

29) 외람된 말이지만, 학현이 민주 투사가 되어 거친 광야로 나선 것은, 노획한 인사들이 ‘정의감 넘치는 그러나 순진한’ 그를 교묘하게 유혹해 낸 결과가 아닐까?.

적지 않은 수의 인사가 사심 없이 공익을 추구하던 초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상심하기도 하였다.

학현의 따뜻한 가슴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것이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사장이 되어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나누어주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학현은 2007년에 이사장이 된 이래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지속해 왔는데 그에게 특히 소중하게 기억되는 것은 기댈 곳이 없는 북녘 동포들에게 연탄을 나누어주면서 느낀 진한 동포애다. 그 일이 당장 조국 통일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한 소중한 걸음이라는 생각에서 학현은 열정적으로 (통일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펼쳤다.

5.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학현이 가장 흠모하는 학자가 마셜이다. 학현이 쓴 논문, 기고문, 저서 그리고 회고록 등에 그러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무엇이 스미스, 밀, 리카도, 맬서스 같은 경제학자를 제쳐두고 마셜을 표상으로 삼게 한 것일까? 무엇이 케인스, Hicks, 사무엘슨, 하이에크, 슈페터 등에 관해서는 마셜만큼 관심을 두지 않게 한 것일까? 좁게는 서울상대를 개혁하고 넓게는 한국의 경제학을 혁명적으로 재건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케임브리지 경제학부 창설을 주도하여 케임브리지 경제학파의 창시자가 된 경제학자로서의 마셜에게 강한 동지 의식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간을 중심에 둔 경제학 연구 즉, 어려운 이웃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살아갈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학자나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마셜에게서 학자로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듯도 하다.

마셜이 가고자 한 길 그리고 마셜이 배출하고 자 인재의 모습은 아래에 인용한 케임브리지 정치경제학 석좌교수(후의 케임브리지 경제학부장) 취임사(A. Marshall, 1885)에 그가 뜻하던 바가 나타나 있다.

“강건한 인재들의 위대한 어머니인 케임브리지에 세상에 내보내는, 그들 곁에 존재하는 사회적 어려움과 싸우는 데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그 일부나마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차가운 두뇌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재의 수를 늘리는 일에 나의 빈약한 재능과 한정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겠다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며 내 최고의 과업이다.”

학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셜의 ‘차가운 머리 - 따뜻한 가슴’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그게 본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며 동시에 본인이 양성하려는 후진들의 이상형임을 누누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상을 의미하는가? 답의 일단이 아래에서 인용한 정기준의 추모사에 있다.

‘이 글을 보면, (중략) 마셜이 길러내고 싶은 인재는, 사회적 통고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들이며, 이 통고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발굴할 방법을 모색하는 “냉철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다. (중략) 마셜은, “물질적 수단이 부족해서 사람답게 살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걱정적 사회주의자들이나 무식한 웅변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는 처방이란 것이, 고치고자 하는 사회악을 오히려 키우는 설익은 처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그 이유는, 어려우며 복잡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후략)’

마셜이 지향한 이상형 인재는 머리로 가슴도 모두 차가운 인재나, 머리로 가슴도 모두 뜨거운 인재나,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인재가 아니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머리로 가슴도 뜨거운 자는 설익은 생각과 이론으로 만든 방안을 동원해서 어려운 이를 돕겠다며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머리로 가슴도 차가운 자는 생각과 이론은 바를지 몰라도 그것을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가리킨다. 머리는 뜨거우나 가슴이 차가운 자는 설익은 생각과 이론으로 만든 방안을 동원해서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곤경에 빠뜨리는 자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재는 바른 생각과 이론에 근거한 방안을 써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도 이익을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바로 이것이 마셜이 생각한 이상형 인재상이며 또 바로 그 점이 학현이 마셜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까닭이다. 학현은, 마셜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의 온 생애를 바쳐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상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마셜과 학현은 얼마나 성공했을까? 필자는 이 물음에 답할 능력이 없다. ‘학현의 제자인 나는 과연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하고 대답할 수 없어서 부끄럽다.

■ 참 고 문 헌

1. 변형운, 『학현일지 - 변형운 회고록』, 현대경영사, 2020.
2. 정기준, “학현 변형운 선생님 추모사,” 『대한민국학술원통신』, 제355호, 2023, 2.
3. 정운찬, “경제학계의 큰 줄기,” 『경기동창회보』, 1992.
4. 학현 변형운 전집 간행위원회, 『학현 변형운 전집 1 경제사상과 경제철학과』, 지식산업사, 2012.
5. _____, 『학현 변형운 전집 9 삶의 발자취』, 지식산업사, 2012.
6. Katia Caldari and Tamotsu Nishizawa ed., *Alfred Marshall's Last Challenge: His Book on Economic Progres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20.
7. Hebert S. Foxwell, “The Economic Movement of Englan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2, No. 1, 1887, pp.84-103.
8. John M. Keynes, “Alfred Marshall, 1842 - 1924,” *Economic Journal*, No. 135, Vol. 34, 1924, pp.311-372.
9. Alfred Marshall, *The Present Position of Economics, An Inaugural Lecture*, Macmillan, 1885.
10. _____,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20.
11. J. K., Whitacker, “Alfred Marshall (1842 - 1924),” i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Vol. 3, 1987, pp.350-363.

Alfred Marshall and Hakhyun Byun, Hyungyoon

Jisoon Lee*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life, scholarship, teaching, and civil activities of the late Professor Byun, Hyungyoon, whose pen name is Hakhyun, in light of the life, scholarship, teaching, and civil activities of Alfred Marshall. Marshall was the father of the Neoclassical Economics and the founder of the Cambridge School of Economics. He wrote, among others, the *Principles of Economics*, which is still one of the most cherished classics. He has established the School of Economics at Cambridge and reared eminent scholars such as Pigou, Keynes, Whittaker, and Hicks. With them and their students Marshall founded the Cambridge School of Economics. Hayhyun had rebuilt the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most eminent higher education institute. He had reared numerous students, most of whom later became prominent scholars, business leaders, and high-level bureaucrats. In this sense, Hayhyun was the rebuilders of a (economics and management) college or school. Unlike Marshall, who stayed on campus during his lifetime, Hakhyun had actively participated in civilian movements, fighting against the long lasted military dictatorship. He has fought for democracy, better treatment of workers and the poor, and social as well as economic equality. Naturally numerous students of him joined in these movements. They are often called as members of the Hakhyun School of Economics. Hakhyun revered Marshall deeply. He used to quote Marshall's dictum that "I will do my best to rear young men (and women) who have cool heads but warm hearts and who would do their best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itizens." Indeed, it was Hakhyun's lifetime goal to teach his students to have cool heads but warm hearts.

Key Words: Marshall, Byun, Hyungyoon, Cambridge School of Economics, Reformation of the SNU College of Commerce, Propagation of econometrics, cool heads but warm hearts

JEL Classification: B31, B32

Received: Dec. 27, 2023.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jisoon@snu.ac.kr